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아주대 석좌교수

‘코딩 교육’과 문맹 탈출

생겼다. 이미 영국이 교육과정에서 코딩 교육을 도입했고, 미국이 여러 주에서 도입을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생을 대상으로 곧 시작된다.

단순 코딩은 번역과 비슷한 과정이라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기술만을 숙련해서는 미래에 쓸모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통역을 대신하게 돼도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여전히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이지 않나. 접할 수 있는 세상이 훨씬 커지니까.

코드카데미의 자크 심즈 창업자가 얼마 전에 방한했다. ‘코딩’에다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의 ‘아카데미’를 조합한 코드카데미는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기업이다.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두고서 세계적인 코딩 교육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그가 강연한다고 하길래 코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이려니 했는데, 아니었다.

뜻밖에도 그가 강조한 것은 수학 문맹(computational illiteracy) 해소였다. 계산적 읽고 쓰기(computational literacy)는 계산을 잘하는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과정인 알고리즘 설계 능

력이 대부분이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코딩 능력이 나머지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방식들 중에서 최적인 것을 찾아내고 판단하는 능력인데, 통상의 수학 교육이 지향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과 다르지 않다.

심즈에 이어서 강연한 프라딕 두베이 인텔 병렬컴퓨팅팀 소장도 이 견해에 동의했다. 프로그래밍 기술의 개선으로 원래 프로그램의 속도를 수십 퍼센트 개선할 수 있겠지만,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개선은 알고리즘의 개선에서 온다는 것이다. 수학적 문맹을 벗어나야 이런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두베이 소장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아웃사이드인(outside-in) 시대의 도래까지 예고했다.

그러나 코딩 교육이 단순히 프로그래밍 기법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면 곤란하다. 자신의 목적을 구현하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능력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물론 코딩 기법도 알아야겠지만, 알고리즘을 코딩해 주는 기계학습 시스템의 출현은 불문가지다.

심즈는 국가별로 교육이 잘되고 있는

지를 제는 정량적인 척도는 대학 입학률과 취업률이라고 주장했다. 전자는 초중고 교육의 척도이고, 후자는 대학 교육의 척도다. 대학입학률은 우리나라가 기형적으로 높지만 대졸자 취업률은 낮으니,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은 성공적이고 대학 교육은 실패하고 있는 게 된다.

정말 그러가. 오바마는 여러 번 미국 초중고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치적 목표로 대학 입학률을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한국 초중고 교육의 우수성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한 것도 이런 성공 척도와 일맥상통한다.

교육의 성공에 대한 이러한 척도의 무모함에 대해 맹렬히 논쟁하려는 사람에게 심즈는 한마디 더한다. “현행 교육은 대학 입학률과 취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점차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취업의 측면에서 더 이상 대학은 교육 시스템의 주요 부분이 아니며 코딩 교육을 포함한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MOOC의 확산 등으로 이미 그 조짐이 보인다. 대학의 존립이 취업이 아닌 다른 가치 창출로 정당화되어야 하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다.

종교칼럼



연광 증심사 주지·광주불교연합회장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빛나게 하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는 어엿한 이름이나 자랑을 흔히 ‘명예’라 한다. 명예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칭송을 받는다. 또한 어떤 공로나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뜻으로 특별히 가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믿어 땃땃하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을 긍지라 하는데, 명예로운 삶을 살 때 보통 긍지를 느낀다.

하지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를 쓰면 긍지보다는 체면에 얽매이기 쉬워진다. 명예는 자랑스럽다 하지만, 명예욕은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자기 힘의 공로나 명예 또는 출세하는 데만 급급해서 서두르다 보면 온갖 비겁한 일을 저지할 수도 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는 식이 될 수 있다. 물론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살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명예에 눈이 멀어 바른 판단을 잃으면 이 또한 잘못이다. 명예를 목적으로 사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기심과 다름 것이 없을 것이다. 바르게 사는 가운데 명예가 저절로 얻어지는 것

이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은 자칫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자기 이름을 걸고 울바르게 사는 것이 옳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알맞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명심하면서 행동한다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땃땃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 욕구를 억누르며 보이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면 헛된 명예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항기로은 뉘새가 나는 항 속에 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욕심을 따라 명예를 구하는 것은 자신을 태워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명예는 할 것을 마땅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땅히 하지 않는 가운데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말, 그리고 속마음이 일치하면 거침이 없다. 즉, 당당하다. 스스로 땃땃하여 거침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한테 충실할 때 얻게 되는 것이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고, 스스로 땃땃하여 눈치 볼 것 없이 사는 가운데 저절로 얻게 되는 명예가 있다. 이러한 명예가 참된 명예라 할 수 있으며, 울바르게 이름을 남기는 길이다.

기고



박병동 여수경찰서장

또 다른 희망을 꿈꾸며

여수시는 ‘국제 해양관광 1번지’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여수경찰서는 자체적으로 관광경찰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경찰헬기를 투입한 입체적 교통관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여수시가 올해 국제해양관광도시 부문 2016년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여수시가 세계적인 해양관광 도시로 주목받고 있지만 읍주운전, 불법 주·정차, 난폭운전 등 후진적 교통문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서한문 발송,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희와 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노인보호 치안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보이스 피싱 등 노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이산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여성 범죄 예방 대책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민들을 찾아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 문화를 통한 내부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심과 배려도 아끼지 않고 있다. 소속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청사 옥상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직원들과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매일 1~2개 사무실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으며, 직원 애경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호조호원(互助互援)’ 서로 돕고 서로 구원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지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조호원의 자세로 지역공동체 전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경찰에 투신한 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직원 1명이라도 더 만나 점을 나누고,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 드셨다면... 이런 아쉬움 때문인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뇌리에 각인돼 있는 생각 하나가 내 마음속에 명어로 자리 잡고 있다.

퇴직 후 그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지인들과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보은(報恩)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빛을 갚아야 한다는 걱정과 고민 때문에 부담이 크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라 생각과 있었지만 그날까지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을 스스로 약속해 본다. 35년 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섭섭함이나 회한도 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열정의 불꽃을 태우고 싶다. 먹을 가는 시간이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는 것처럼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대해 오랜 기간 많은 고민과 구상을 했던 만큼 미려하나마 지역발전이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社說

부패 방지 김영란법 애꿎은 농민 피해 줘서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개시(9월 28일)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축산업계 반발이 거세다. 현행대로 강행하면 농여가의 위축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옛그제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은 법적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과일은 전체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 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어 규정에 따른다면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란법은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로 1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상한 기준을 훌쩍 넘는 한우와 인삼 상품 판매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초경쟁 상태다. 수산업계와 외식업계 등도 이에 적용 대상에서 빼든지 음식물·선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사회나 기업체에서 자리 이동시 선물로 수요가 많은 화훼업계도 근심은 마친가지. 벌써 축하의 뜻을 담은 꽃을 뇌물의 대상으로 인식해 반송하는 일이 많아 법 시행이 본격화되면 화훼업과 연계된 종묘회사, 비닐하우스 시설업체까지 당당히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이처럼 절박한 하소연을 끝내 외면한다면 김영란법은 자칫 ‘수입 농축산물 장려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염려마저 나온다. 즉 법 규정을 지키려면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 제품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든 약속이나 위촉된 농여가가 파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이야 백번 마땅하지만 애꿎은 농여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치권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 망신 우려되는 광주 세계수영대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 조직위 구성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제수영연맹(FINA)이 준비 미흡을 이유로 “대회 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부와 광주시에 통보하는 딱한 지경에 이르렀다.

코넬 마르클레스쿠 FINA 사무총장이 최근 광주 시장을 참조인으로 명기한 서신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 예산, 경기시설 확정, 조직위 사무총장 인선 등에 대한 즉각 보증을 요구한 것이다. 서신에는 개최 취소를 규정할 때까지 협약 조항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경고까지 담겼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 시는 FINA에 이미 지급한 개최권료 89억 원, 보증금 24억 원을 비롯한 위약금 500만 달러 등 모두 3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국제적인 신인도 추락과 망신은 불문가지다.

FINA 측이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

를 거론했지만 그 핵심은 대회 준비를 총괄할 조직위 사무총장 선임일 것이다. 지난달 FINA 심사단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도 대회 조직위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데다, 나중에 꾸러진 조직위에도 책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FINA가 시의 대회 개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 시는 김윤석 2015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사무총장을 수영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내정해 문화부 동의까지 받았다가, 시장 측근의 권유로 백지화했다고 한다.

따라서 엉클어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따로 있지 않다. 조직위 사무총장을 서둘러 임명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충실한 대회를 준비하면 될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유니버시아드를 성공 개최해 국제적인 도시로 지명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수십 년 공들여 만든 도시 이미지도 허물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엔트로피(entropy)는 잘 알려져 있지 못이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다. 엔트로피가 낮으면 가지런히 정리된 상태, 그리고 엔트로피가 높으면 엉망으로 흐트러진 상태를 뜻한다.

과학자들은 “모든 물건이나 에너지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해 간다”는 규칙을 밝혀냈는데, 이것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간단히 말해 “우주의 모든 물건이나 상태는 질서 있는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 간다”

는 얘기다. “모든 새 것은 헌 것이 되고, 태어난 모든 생명은 늙고 죽는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니까”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될 듯하다.

‘우주의 필멸’을 예언하는 다소 암울한 규칙이긴 하지만,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저작 ‘엔트로피’라는 책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이야말로 인류가 발견한 유일한 진리’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과학·천문학과 같은 전문 분야를 듣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

용된다는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 좋은 예다.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목표를 세운 것이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초심을 잃고 나타해지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제레미 리프킨 식 해석이라면 ‘작심(作心)이 삼일(三日) 이상 가는 것이야말로 엔트로피의 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생을 신고질서 있는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 간다”

하지만 최근 정몽 특수부 검사에서 ‘피의자’로 전락한 홍만보 변호사나 법조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보면 “사람은 시간이 가면 아열 수 없이 변해 가는가 보다”라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다가 나라으로 굴러떨어진 이들이 어디 그들뿐이겠는가마는 “누구도 엔트로피의 법칙을 피해 갈 순 없는 건가”라며 허탄 차고 있기에는 뭔가 찝찝한 것도 사실이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